

경제

같은 '빅마트' 속은 '롯데슈퍼'

롯데서 진월·매곡·화순 식품매장 5년 임대 운영

지역 중소상인들 "대형업체 편법 확장" 반발

롯데쇼핑이 19일 향토 유통기업을 표방해 온 빅마트의 점포 3곳을 장기임대해 '롯데슈퍼'로 명칭을 바꿔 개점했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국단위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을 벌였던 빅마트는 이로써 지난 2007년 초 롯데쇼핑에게 14개 점포와 부지 1곳을 800억원에 매각한 뒤 2년여 만에 나머지 점포의 식품매장까지 임대 방식으로 넘겨주게 됐다.

20일 빅마트에 따르면 대형 유통매장들의 공세 속에서 자금 압박이 심해지고, 상품 공급까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롯데쇼핑에 5년 간 빅마트 본점인 진월동 빅시티와 북구 매곡동 북부점, 화순점 등 3곳의 지하 식품매장을 임대하기로 했다.

빅마트는 식품매장을 제외한 의류, 문구 등의 생활매장은 운영하기로 해 유통시장에서의 명맥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통매장의 핵심인 식품매장에서의 빅마트 철수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지역 중소 유통매장 및 점포의 몰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빅마트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금 결제가 쌓이면서, 2~3개월 전부터 제대로 상품공급이 안 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했다"며 "2007년 점포를 매각할 때 나머지

점포에 대해서도 우선협상대상으로 한다는 항목이 있어 롯데쇼핑에 임대방식으로 들어올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 내에서 반대 의견이 높다는 사실은 알지만,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빅마트 측은 롯데쇼핑에서 임대료를 받아 밀린 납품 대금과 채무 등을 정리할 방침이며, 직원들의 고용과 납품업체의 승계를 조건으로 롯데쇼핑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간부급 직원들과 롯데쇼핑 납품업체와 품목이 중복되는 빅마트 납품업체의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롯데슈퍼의 진출에 대한 지역 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롯데쇼핑과의 임대계약 추진 과정이 내부 직원들조차 모르게 극비리에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빅마트의 한 직원은 "오전에 출근해 보니 모든 것이 롯데슈퍼로 바뀌어 있었으며, 사전에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용재(42)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마지막 남은 토종업체가 롯데에 넘어가면서 지역 내 유통 독과점 우려, 자생적인 지역상권 몰락, 소비자 및 납품업체·인근 중소상인들의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광주에서 백화점 1곳, 대형마트 4곳, 기업형 슈퍼마켓(SSM) 13곳(화순 1곳)의 매장을 확보하게 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일 롯데슈퍼로 상호를 바꿔 단 광주시 남구 진월동 빅마트 본점 빅시티 건물 내부로 쇼핑객들이 들어가고 있다.

위희량기자 jrwi@kwangju.co.kr

국내 기업 '고용없는 성장'

5년간 매출 24% 증가 불구 고용 되레 2% 줄어

546개 업체 조사

최저 5년간 국내 기업들의 매출은 계속 증가했음에도 고용은 감소추세가 이어지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장사협의회가 20일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과 직원 수 비교가 가능한 유가증권 상장사 54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매출은 매년 최소 6% 이상 증가세를 보였지만 고용은 오히려 해마다 소폭 감소했다.

올해 3분기 말 현재 조사대상 기업의 직원 수는 모두 83만1천731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0.2%가 줄었으며 5년 전보다는 2%나 줄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796조6천955억원으로 2005년보다 24%나 증가했

다. 연도별 매출액은 2005년 603조4천663억원, 2006년 639조7천133억원, 2007년 675조6천413억원, 2008년 796조6천955억원 등으로 매년 6~18% 증가했다. 올해도 3분기 말 현재 누적 매출액은 592조7천587억원을 기록, 연간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늘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별로는 546개 조사 대상 기업의 3분의 2 정도인 318곳이 고용자 수가 5년 전과 같거나 줄었다. 대우전자 부문의 5년 전 직원 수가 506명이었지만 올해 3분기 말 현재 101명으로 80% 감소했다. 삼익악기는 같은 기간 174명에서 89명으로 반토막났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은 9천 819명에서 6천265명으로 줄어들었다.

직원이 증가한 기업 중 생체줄기세포 연구개발 기업인 알앤엘바이오가 2005년 29명에서 올해 159명으로 증가해 548%의 고용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NHN(363%), 티엘씨(256%), 웅진코웨이(251%)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 중에는 삼성엔지니어링(233%), STX(225%) 등의 고용 증가율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생산성 증가로 인해 매출 신장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LG경제연구소 이근태 연구원은 "제조업체의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에도 고용 효과가 수반되지 못하고 있고 고용 기여가 크지 않은 IT 업체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연희뉴스

광주 소매유통업체 "내년 1분기도 호전"

광주 소매유통업의 체감경기가 내년 1분기도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가 18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전자상거래, 슈퍼마켓 등 광주지역 1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결과, 경기전망지수(RBSD)가 113으로 기준치(100)를 웃돌았다. 지난 3분기(103), 4분기(104)에 이어 3분기 연속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앞으로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업의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식 및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가계소득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설 대목 및 신학기 특수 등으로 매출 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백화점(130)과 대형마트(120)는 설 대목과 신학기 특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113)는 계절적 요인과 상품 경쟁력 향상 등의 영향으로 각각 지난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편의점(89)은 계절적 요인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슈퍼마켓(100)은 지난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역 유통업체들은 내년 1분기 경영여로 요인으로 '소비자의 소비심리 위축(22.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업체 내 경쟁 심화(21.7%), 수익성 하락(20.7%)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학기 특수 등으로 매출 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백화점(130)과 대형마트(120)는 설 대목과 신학기 특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113)는 계절적 요인과 상품 경쟁력 향상 등의 영향으로 각각 지난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편의점(89)은 계절적 요인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슈퍼마켓(100)은 지난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역 유통업체들은 내년 1분기 경영여로 요인으로 '소비자의 소비심리 위축(22.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업체 내 경쟁 심화(21.7%), 수익성 하락(20.7%)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한편 지역 유통업체들은 내년 1분기 경영여로 요인으로 '소비자의 소비심리 위축(22.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업체 내 경쟁 심화(21.7%), 수익성 하락(20.7%)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한편 지역 유통업체들은 내년 1분기 경영여로 요인으로 '소비자의 소비심리 위축(22.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업체 내 경쟁 심화(21.7%), 수익성 하락(20.7%) 등의 순으로 답했다.

선원 최저임금

내년 109만8천원

내년도 우리나라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6%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만2천원 오른 109만8천원으로 확정해 노·사·정간 서명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상률은 선원 최저임금이 도입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1년 15.1% 인상된 이후 2007년까지 10%대 인상을 보이다가 2008년에는 8.5%, 올해는 7.8%였다. 선원 최저임금은 상선과 원양어선 등 규모가 큰 사업장에는 관련성이 적지만, 영세한 사업장인 연근해 어선원들에게 적용된다.

연희뉴스

소비자 농산물 구입시 고려사항
원산지 > 안전성 > 가격 > 맛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는 원산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27일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1천명을 상대로 농산물 구입 시 중요 선택 기준을 물은 결과 원산지가 39.2%로 수위에 올랐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성(34.9%), 가격(10.1%), 맛(8.4%), 외관(2.5%)이 그 뒤를 이었다.

농식품 안전과 관련, 농산물에 포

함된 유해물질 중 농약(48.3%)과 중금속(41.9%)이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중독균(4.0%), 곰팡이 독소(2.2%)란 답도 있었다.

소비자의 76.7%는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고 96.4%는 수입 농산물보다 국산 농산물이 더 안전하다고 답했다. 안전한 농식품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안전성 검사 강화(46.3%), 생산자 교육·지도 강화(26.5%), 관련 정보공개 확대(16.2%)를 꼽았다.

연희뉴스

송기진 光銀행장 '대한민국 CEO 대상'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대한민국 CEO 대상'을 수상했다.

송 행장은 지난 18일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과 상생 기업문화의 적극적인 전파를 인정받아 '사회공헌

경영 부문' 대상을 받았다. 송 행장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제14회 중소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에서 광주은행을 대표해 기관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연말

답을 주며 '2009 대한민국 CEO 대상'을 수상했다. 송 행장은 지난 18일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과 상생 기업문화의 적극적인 전파를 인정받아 '사회공헌

경영 부문' 대상을 받았다. 송 행장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제14회 중소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에서 광주은행을 대표해 기관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연말 답을 주며 '2009 대한민국 CEO 대상'을 수상했다. 송 행장은 지난 18일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과 상생 기업문화의 적극적인 전파를 인정받아 '사회공헌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로드북권

(제368회)

Table with columns: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등 위, 당첨금(원). Rows show lottery results for Road North region.

팝콘북권

(제191회)

Table with columns: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Rows show lottery results for Popcorn North region.

Financial summary box showing various indices like 코스피지수 (1,647.04), 코스닥지수 (513.78), 금리 (4.20%), and 원·달러 환율 (1,176.20원).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with details like location, size, and pric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unwonji, featuring a large house for sale/rent with detailed specifications and contact information.